

곡성교육문화회관, 길 위의 인문학 열어

‘길 위의 인문학’ 통해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추억을 그려보는 인생 그림책’도 발간해

곡성교육문화회관이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함께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내는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곡성교육문화회관은 ‘함께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글을 모아 ‘추억으로 그려보는 인생 그림책’을 발간하고 최근 곡성군 입면 길작은도서관

에서 책 발간 기념회를 열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중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 결과 곡성길작은도서관과 연계해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5월부터 9월까지 곡성 입면 지역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함께 읽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

기, 다른 사람 글 읽고 소감 발표 등 어르신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입면에서 시집을 출판한 할머니 5명을 모아 본인이 직접 쓴 시를 토대로 인형극을 제작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적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했다.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문화적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인 1권을 출판할 수 있

도록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도 만끽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각자의 책을 만들었으며 나머지는 묶음 책 1권으로 제작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책을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었다.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했고 결국에는 내가 직접 책을 만들 수 있게 돼 뿌듯했다.”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 이전보다 더 돈독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 학부모 그림책 토크콘서트 초대 개최

목포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희망하는 유치원 학부모 100명여 분과 함께 ‘그림책 토크콘서트’를 운영한다. 이번 그림책 토크콘서트는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 쉽게 접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나아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토크콘서트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림책과 국악의 만남을 시작으로, 1부 전문가, 교원, 학부모와 함께 그림책에 관한 공감 토크와 2부 소그룹으로 그림책 수다 나누기,

함께 그림책 읽기, 책놀이로 운영된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한 그림책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그림책 토크콘서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유선전화(061-280-6613, 6615)로 신청, 문의 가능하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그림책 토크콘서트를 통해 자녀와 행복한 교감이 그림책으로 이루어지도록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 ‘남양하하 마을학교’ 학교학부모회 성공사례



고흥 남양하하 마을학교가 학교학부모회 활동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남

양하하 마을학교는 교육청 지원으로 남양초 학부모 10명이 기투합해 지난 1월 설립됐다. 남양초 1,2학년 대상 주1회

‘학부모 동화책 읽어주기’ 참여 회원을 주축으로 한 학부모회가 마을학교로 발전한 사례이다. 남양면 초·중 학생 75%인 35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해 모범적인 마을학교로 성장했다. 이 마을학교는 남양초 독서캠프, 인문학기행을 주관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격주 토요일마다 생활공예(열쇠고리 인형만들기 등), 현장체험(해원 산양목장 치즈만들기 등), 계기교육(세월호 추모행사 등), 문화행사(할머니 손잡고 영화보기 등), 생태체험(갯벌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남양초·중 학생과 학부모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나들이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의 친밀감을 높이고 속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에는 생태농원소향에서 피자만들기, 오후에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견학, 도자기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지호 군은(남양초) “주말에는 컴퓨터게임만 했는데 마을학교에 오면 엄마들과 친구들이 있어 즐겁다.”며 웃음을 보였다. 정길주 교육장은 “남양하하 마을학교는 학교학부모회가 발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공동육아의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첫아이 학부모 되기’ 교육

22개 교육지원청 대상 실시...유치원 부모 호응

광양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 ‘성료’



광양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 광양중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11일 태인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희망하는 학교의 체육관에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 놀이활동을 통한 예술적 소양 능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놀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초등학교 5교(513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슬아슬 줄타기, 빙글빙글 버나 돌리기, 던져라 죽방울, 궁중놀이 포구락 등 다양한 전통문화 놀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워 나갔으며, 전통 악기의 탐색

과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장구와 부채등을 만들어 보았으며, 마지막에는 안재 들어도 흥이 나는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대동단결의 모습도 보였다. 세종초 김현정 교감선생님께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학생들이 더욱 더 밝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전남도교육청이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예비학부모교육, 일명 ‘첫아이 학부모 되기’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목포옥암유치원에서 목포옥암유치원, 목포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부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 18명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초등예비학부모교육을 연합으로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 주최, 목포학부모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가 될 유치원 부모를 대상으로 목포대연초등학교 이광수 교감이 강사로 나섰다. 이광수 교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학 전에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시킬지,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강의했다. 학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감기로 인한 결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취학통지서를 받고 이사를 한 경우 학교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등 실질적인 사항을 물어보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끈 한 학부모는 “첫아이라 막막하고 불안했는데 자세한 안내를 듣고 불안감이 해소되고 학부모로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교육!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